

민족민주노동열사 허세욱 9주기 추모제



일시 | 2016년 4월 10일(일) 오전 11시

장소 | 마석 모란공원

주관 | 민족민주노동열사허세욱정신계승사업회

진행 <9주기 추모제>

11:00

사회 박석민 허세욱열사추모사업회 집행위원장(민주노총 통일위원장)

민중의례

약력 유종대 한독운수노동조합 사무장

추모사 구수영 허세욱열사추모사업회 회장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최병상 무안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대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추모가 관악을 여는 사람들

7회 허세욱장학금 수여

투쟁기금 전달

헌화

No.

양국적 한미 FTA 폐지하라
 계속 계속 반민주적 협상을
 중지하라
 나는 이 나라의 민중을 구한다는 생각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비열한 반통일적인
 단체는 각성하고 우월주의적 생각을 버려라
 계속 현실적인 협상내용을 명백히 공개
 홍보하기전에 체결하지 마라 우리나라 병변
 그런내용이 없다는것은 곧 술책이다
 의정부여공생을 우롱하듯 감투 쓰고 죽이고
 두번 죽이지 마라 여공생의 한을 풀자
 토론을 강조하면서 실제로 평택기지 이전
 한미 FTA 토론한적 없다 승고한 민중을 우롱하
 실제로 4대선별조건, 투자자 정부레소전, 비워반레소
 건 합의해주고 의제에도없는 쌀을 연탁전출해서
 쇠고기 수입하지 마라. 언론을 모도하고 국민을 우롱하지마라.
 두권가 가지겨서 하는일은 싫다
 나는 내자신을 버린적이 없다
 저 멀리 가서도 묵묵히 꾸준히
 민주노총과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민주택시 조합원 2007. 4. 1

허세욱 드림.

E-HWA

No.

한동식구
 나를 대변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위에 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쪼록 하지 말아주세요
 전북 비정규직 이니가
 동지들에게 부탁 (나를 아는 동지)
 내가 죽으면 화장을 해서 전주에
 있는 미군기지에 뿌려서 밤새도록
 미국놈들 괴롭히게 해주세요
 효순, 미선 한을 감고, 동병장은 내 돈으로 부탁.

2007. 3. 4. 1

E-HWA

열사가 살아오신 길

허세욱 열사의 삶과 투쟁

유종대 / 한독운수노동조합 사무장

택시 노동자 허세욱 형님,
우리 곁을 떠나신 지 벌써 9년이 지났습니다.

허세욱 열사 약력을 확인하는 것으로 다시 기억하고자 합니다.

1952년 안성에서 태어나 빈민촌에서 서울생활을 하신 형님은 거둬되는 철거를 겪으며 저항과 투쟁을 몸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배달일로 생계를 꾸린 덕분에 스스로를 배달의 기수라고 말하던 형님은 1991년 한독운수에서 택시 노동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며 힘든 사람을 나르고, 희망을 나누는 진정한 '배달의 기수'였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된 것을 가장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라던 형님, 한독운수 미주민주화한독운수 대의원과 통일부장으로 활동하며 민주노조 활동에 누구보다 헌신적이었고, 서울에서 부산 대구 여수 천안 전국의 모든 택시노조 투쟁현장에 자신의 삶을 다 바쳐 투쟁했습니다.

형님은 마지막 가시면서도 '모두 비정규직인데 모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신 역시 삶의 막장으로 내몰린 택시노동자로 살면서도 누구보다 나눔을 실천하고, 그 누구보다 동지를 걱정했던 형님은 진정 '사람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노동자'였습니다.

2002년, 미군장갑차에 깔려 처참한 사고를 당한 두 여중생 사건을 접하고, 다시는 이 땅에 효순 이 미선이가 또 다시 생겨서는 안 된다며 촛불집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가했던 허세욱 열

사! 2007년, 한미 FTA가 강행되면 경제는 물론 정치군사적으로도 한국이 더욱 심각하게 미국에 종속되면 노동자 민중에게 희망은 없다고 생각하신 형님은 자신의 삶과 투쟁을 우리 모두에게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항상 투쟁 현장에 나서던 형님은 한독운수에서 16년 동안 지각이나, 결근 한 번 없던 성실한 노동자로 조합원의 모범이었습니다. 미군 없는 평화 통일세상, 차별 없는 노동자 세상을 꿈꾸던 허세욱 형님! 우리는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노동자가 전체 민중의 요구를 앞세우고 투쟁하는 길로 나가도록 하는 그 길에 형님께서 늘 함께 하고 계신 것을 압니다.

박근혜 정권 3년,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형님이 우리에게 남긴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더욱 힘차게 싸우겠습니다.

허세욱 열사 9주기를 맞으며

허세욱 열사 정신은 단결과 연대, 헌신과 실천, 자주와 평화입니다 ...

구수영 / 허세욱열사추모사업회 회장

얼음장처럼 차갑던 동토의 칼바람을 끝내 물리치고 봄내음 가득 꽃바람을 훑날리며 4월은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4월이 오면, 해맑은 웃음 가득한 허세욱 열사의 얼굴이 떠올라 복받치는 설움과 그리움에 눈물이 흐릅니다.

열사께서는 분열하고 갈등하는 우리들에게 단결하라! 연대하라! 출세의 유혹과 정치적 기득권을 과감히 내려놓고 뭉쳐 싸우라며 부끄러움을 넘어 깨달음과 용기를 주신 우리의 영원한 동지입니다.

열사께서는 게으르고 모자란 우리들에게 헌신하라! 실천하라! 지친 어깨를 격려하여 당당히 일으켜 세우고, 얼어붙은 심장을 힘차게 박동쳐 뛰게 만드는 우리의 영원한 동지입니다.

열사께서는 분단과 전쟁의 참화 속에 신음하는 한반도에서 죽어서도 두 눈 부릅뜨고 강토를 지키겠다고 미군기지에 유골을 뿌려달라는 유언으로 자주와 평화와 통일의 기운을 뜨겁게 불어 넣어 주신 우리의 영원한 동지입니다.

9년 전 4월 첫 날, 남산자락 하이아트호텔 앞에서 홀연히 자기몸을 불사르며 한미FTA 반대를 외쳤던 열사의 절규는 혁신하라고 지금도 우리들의 살 껍데기를 아프게 벗겨내고 있습니다.

열사는 이 땅의 택시노동자로 살면서 가난했지만, 항상 해맑은 웃음을 잃지 않고 솔선수범하셨습니다. 민주노총 민주택시노동조합 한독운수분회의 조합원으로, 참여연대와 평통사의 회원으로, 민주노동당원으로, 정의로운 민주시민으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허세욱 열사 9주기를 맞는 올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부끄럽습니다.

3일 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에서 우리는 패배를 자초하는 야권분열이 악습을 스스로 타파하지 못한 채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되살아난 유신독재 망령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저들은 노동계약과 경제파탄, 장기집권과 전쟁참화의 수렁으로 가속페달을 밟아 참혹하고 불행한 사태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4.16 세월호 참사 2주기입니다.

아직도 진상은 규명되지 못했는데, 특조위 활동시한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세월호는 바다 속에 잠겨 있는데,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들이 차가운 바다 속에 수장되어 있는데, 지금도 아이들의 영정을 안고 밤낮없이 행진하고 농성하며 오열하고 통곡하는 유가족들이 절규하고 있는데, 특조위 활동시한이 끝나고 진상이 바다속에 묻히기만 기다리는 저 악마같은 세력을 이대로 둔 채 심판하지도 못하고, 단죄하지도 못한다면, 우리가 열사앞에 부끄러워 어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가난한 택시노동자 허세욱이 9년 전 4월 첫날 결심하고 자기 몸에 불을 당겼던 열사의 절규가 오열하고 통곡하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절규와 다름이 없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허세욱열사는 항상 우리 곁에 살아 계십니다.

단결하라! 연대하라! 헌신하라! 실천하라! 그리고 혁신하라!

이 땅의 자주와 평화를 향한 열사의 고귀한 정신, 산 자들이 따르겠습니다.

허세욱 열사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모시고 9주기 추모제를 올리면서 단결과 연대, 헌신과 실천, 자주와 평화의 열사정신을 계승하여 민생 민주주의와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강건하게 열어 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열사여! 허세욱 열사여!

무거운 짐 모두 우리에게 내려 놓으시고

부디 해맑게 웃으며 편히 쉬소서~

2016년 4월 10일 허세욱 열사 9주기 추모식에

우리가 살아있는 전태일이 되자

최종진 /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민주노총 조합원임을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셨던 허세욱 열사께서 떠난 지 벌써 9년, 오늘 우리는 자신보다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가장 앞에 세우고, 가장 낮은 곳에서 ‘인간사랑’, ‘실천하는 노동자’로, ‘늙은 전태일’로 사셨던 당신을 기억합니다.

허세욱 열사께서 누워계신 이 곳, 마석 모란공원에는 이 땅의 민주주의와 노동해방,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해 먼저 가신 열사들과 계십니다. 생명을 띄워줄 싹이 돋아나는 이 찬란한 봄은 지난 겨울 더 많은 생명을 내주기 위해 자신을 썩힌 낙엽이 있었기에 가능합니다. 낙엽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준 열사의 9주기를 맞아 이 자리에 모였지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당신은 미국의 지배가 관철되는 나라가 아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아닌 차별받지 않는 노동자 세상,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구별이 없는 평등 세상을 꿈꾸며 온 몸을 던진 참 노동자였습니다.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 받자고 결의했으나 나라 꼴은 더 엉망이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등장은 한국사회의 비극입니다.

바로 얼마 전 정권과 자본의 너무나 지독한 노동탄압으로 또 한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비이성적 탄압은 도를 넘었습니다. 이제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본의 이익을 위해 노동개약을 강행하고, 전국민을 비정규화 하려고 합니다. 불법적 행정지침으로 통해 모든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겠다고 나섰고, 노동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 어떤 정권도 감히 저지르지 못한 민주노총 침탈을 서슴없이 자행하는 반노동 정권에 맞서 민주노총은 농민과 빈민, 학생들과 어깨 걸고 민중총궐기 투쟁으로 맞섰습니다.

주한미군 없는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해 투쟁하셨던 허세욱 열사여!

최근 한반도 상황은 당신이 꿈꾸던 세상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미군이 사용하는 해군기지가 건설되어 평화는커녕 동북아의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이른바 5대 전략자산을 모두 동원된 선제공격전략에 따라 평양까지 진격하고 북의 지도부 참수까지를 목표로 하는 공격적인 한미연합연습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중입니다. 북한도 크게 반발하며,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지대였던 개성공단까지 폐쇄한 박근혜정부의 북한 붕괴 정책으로 위기상황을 조정할 아무런 수단을 갖지 못한 채 군사적 압박만 강화되고 있어 자칫 군사적 충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한미당국은 한국 방어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확인된 사드를 한국에 기어코 배치하려고 합니다. 이에 중국과 러시아가 심각하게 반발하고 있고, 8월에는 대규모 중러 합동군사훈련으로 대응하겠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된 일본은 보안법이 발효되어 언제든지 자위대가 한반도에 재진출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상황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위협받는 상황이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그 어느때보다 당신이 외쳤던 평화와 통일이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올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같은 인간으로 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지만 누구는 정규직으로, 누구는 비정규직으로 살아가야하는 차별에 맞선 당신을 다시 기억합니다. 우리가 더 큰 투쟁으로 차별이 없는 세상, 자주와 평화 통일의 세상을 향해 투쟁하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우리와 같이 계셨다면 '우리 다시 살아있는 전태일이 되자'고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태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노동자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던 당신의 외침을, 그 삶과 투쟁을 기억하고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평등과 평화와 통일세상을 만들기 위한 투쟁에 다시 나서겠습니다.

허세욱 열사를 그리며...

최병상 / 무안 평화외통일을여는사람들 대표

님이 떠나시던 날처럼 속절없이 벚꽃은 피어나고 있습니다.

화사한 벚꽃처럼 님을 사른 불꽃은 신나가 아니라 조국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한미FTA 폐기하라!" 외치시며 산화하신지 어언 9주기를 맞았건만 미국의 횡포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미FTA로도 성에 차지 않아 한미일 신 동맹체제를 구축하여 중국을 포위하려는 정지작업을 착착 진행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졸속 한일 위안부 야합, 해괴한 집단적 자위권 적용, 개성공단 폐쇄로도 부족해 백해무익한 사드까지 배치하려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남께서는 봉천동 철거투쟁으로 세상의 실체를 알아버리고, 효순이 미선이의 투쟁으로 미국의 실체를 깨달으신 후, 평화통일만이 분단조국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평통사 회원이 되어 맹렬하게 활동하시다가 조국을 유린하려는 "한미FTA" 앞에 온 몸으로 항거하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비겁하게 빌라도 뜰에서 배회하며 님을 모른다고 부정하던 저희들, 이제 반성하고 제2, 제3의 허세욱이 되어 주어진 십자가를 감당하겠습니다!

46명의 장병을 잃고도 징계는커녕 즐줄이 진급하는 나라, 304명의 국민을 바닷속에 수장시키고도 2년이 다 되도록 인양조차 하지 않는 나라, 정치권력의 대선개입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국가, 나라의 대표를 선출하는 총선 중에도 30만 명이 동원되어 전쟁 연습하는 나라, 일본군, 미국 군대와 함께 동족을 치려는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을 바로 잡겠습니다!

행여라도 약해지거나 실망할 때 다독여 주시고 손잡아 주소서!

세월이 아무리 아득하다 해도 그리움은 그리움으로...

안진걸 /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선생님, 세월이 아득한 것 같기도 하면서
때로는 바로 최근이었던 것처럼 자꾸 휘어집니다.
그리움의 크기 때문일까요?
원래 삶이라는 게, 기억이라는 것이 그런 것일까요...

자꾸 잊어버리고 살면서, 마치 늘 가까이 기억하는 것처럼
말하는 제 자신의 위악에 놀라면서도,
그래도 늘 정겹고 뜨거웠던 선생님의 마음만큼은
정말 가까이 느껴지는 것은 감히 진실이 아닐까요.

선생님, 2007년 4월 1일 온 몸과 온 영혼을 바쳐버리셨어요.
안 그러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늘 부질없는 생각에 눈물을 흠칩니다.
그러나 끝없는 불의에 도저히 버틸 수 없었던 그 고뇌를 알기에
선생님을 이제는 담담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현 듯 치밀어오르는 그리움은 깊은 회환으로 이어지지만,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깊은 추모나 세상에 대한 한탄만은 아니시겠죠.
오히려 선생님의 숭고한 뜻을 어찌 계승하고 전파할지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선생님의 유지를 이어 온몸으로 행동하는 게 저희들의 참된 도리이겠지요.
선생님, 그날 그 때 4월 1일 소식을 듣고 한강성심병원으로 달려갔었죠.
이미 많은 분들이 커다란 슬픔과 분노를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용서할 수 없는 정권의 행태에 저 자신도 열병을 앓았습니다.
그리고는 4월 15일 선생님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말았습니다.

눈치 채셨겠지만, 선생님을 종종 잊고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상에 찌들어, 삶에 쫓기어, 온갖 시름에 겨워서 잠시 잊는 것이
진짜 잊어버린 것은 아니겠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저도, 저희들도 늘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고요.

선생님, 2006년 12월 말쯤 선생님께서 제게 남겨주신 음성을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안 팀장님, 허세욱이에요.
어제 집회 때 참여연대 깃발이 안보였어요.
늘 참여연대 깃발이 잘 보였는데,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나봐요.
제가 참여연대 회원인데, 큰 집회 때 참여연대가 안보이면 넘 서운해서요.
새해엔 참여연대도, 안팀장님도 더욱 더 건강하시고요.
2007년엔 더 종종 투쟁의 현장에서 뵙게 되길 빌어요. 허허허”

이미 그때 선생님은 궁극의 투쟁을 준비하고 결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음성, 따뜻하면서도 의기어린 그 목소리에 초연해지기만 합니다.
선생님의 귀한 뜻, 이미 세상에 널리 퍼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요즘은 선생님께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만 연속입니다. 송구해서 어찌지요...

그러나, 선생님께서 주신 그 음성 늘 저희들의 귓가에 죽비처럼 메아리칩니다.
슬픔도 힘이 된다는 말처럼 그것이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잊지 않을 것입니다. 더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할 것입니다. 더 행동하겠습니다.

여기 (구)민주노동당, 민주노총, 한독운수노동조합, 관악주민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참여
연대 등 선생님이 사랑했던, 또 역시 선생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선생님, 송구스러운 일이 참 많습니다만 그래도 고맙습니다. 그립습니다. 사랑합니다. 부디 평안
하소서.

추모가

동지를 위하여 / 주문

관악을여는사람들

"동지를 위하여"

그대가는 산넘어로 빛나던 새벽별도
어두운 뒷골목에 숨죽이던 흐느낌도
피투성이 비구름되어 진달래 타는 언덕되어
머물수없는 그리움으로 살아오는 동지여

휘날리던 그 깃발은 가슴 들어맨 영혼이었소
치던 바람 그 함성은 검푸른 칼날이었소
우리지금 여기에 발걸음 새로운데
머물수없는 그리움으로 살아오는 동지여

황토굽이 먹구름도 굽이치던 저물결도
살아오는 동지의 새여명에 눈빛으로
간다 터진 물줄기로 간다 해방에 거리로
머물수없는 그리움으로 살아오는 동지여

"주문"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되어야 해---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이 더 아름다울 수 있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이 더 아름다울 수 있게~~~
히에이야— 아 히야이야이야 아— 히야이야아—야이야—아

저들이 말하는 국민 중에 너와 나는 간데 없고
저들의 계획 속에 너와 나의 미련 없지
저들이 말하는 국민 중에 너와 나는 간데 없고
저들의 계획 속에 너와 나의 미련 없지~~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되어야 해)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이 더 아름다울 수 있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이 더 아름다울 수 있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되어야 해)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이 더 아름다울 수 있게)
(지금지금보다 아름다울 수 있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이 더 아름다울 수 있게---)
(우리가 사는 이곳이 아름다울 수 있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이 더 아름다울 수 있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이 더 아름다울 수 있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제7회 허세욱 장학금 수여

우리 사회 많은 곳에서 허세욱 열사의 삶과 정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작한 장학사업이 올해 9주기를 맞아 7번째 <허세욱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비정규 노동자의 자녀나 열사 유자녀 등에 대해 중, 고등학생의 학자금 지원을 하기로 한 허세욱열사 정신계승사업회의 기준에 따라 아래 학생들에게 허세욱 장학금을 드립니다.

또한 허세욱정신계승사업회 운영위원회에서 7회 장학금 지급과 함께 2015년 6월 11일부터 국가인권위 옥상 광고판에 올라 지금 현재까지 10개월간 기아자동차 비정규 노동자 최정명, 한규협 동지가 투쟁하고 있습니다. 힘든 조건에서 투쟁하는 기아자동차 비정규지회에 부족하지만 투쟁 기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결정 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노동자들이 하늘 집을 짓고, 거리의 투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허세욱 열사께서 살아계셨다면, 언제나 그 투쟁의 한 가운데 계셨을 것입니다.

허세욱열사추모사업회에 1년간 모아 주신 많은 회원들의 고마운 뜻이 장학금으로, 투쟁 기금으로 전달되어 우리 모두 바라는 승리의 작은 보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통문구}

위 학생은 '인간사랑' '실천하는 노동자'로 사신 고 허세욱님의 삶과 정신을 계승하려는 허세욱정신계승사업회 활동 목표에 따라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며 생활하고 있는 000학생에게 장학증서와 소정의 장학금을 드립니다.

'실천하는 삶'은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그 길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제 7회 <허세욱 장학금/투쟁기금> 수여자

임수현 (문성중학교 2학년)

위 학생은 한독운수노동조합 조합원 자녀로써 학교에서는 공부도 잘하고 모범적인 학생이며, 가정에서는 가사일도 성실하게 열심히 돕는 아주 착한 학생입니다. 이에 허세욱장학금을 드립니다.

전성민 (신봉초등학교 6학년)

위 학생은 관악주민연대에서 운영하는 열린공부방에서도 공부하는 학생으로 독거 어르신들의 먹거리를 매주 1회 갖다드리며 지역내에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 훌륭한 학생으로 허세욱 장학금을 드립니다.

고승현 (진평중학교 3학년)

위 학생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구미지부 '스타케미칼해고자복지투쟁위원회' 고민각 동지의 자녀로 고민각 동지는 지난 5년간 해고자 복직과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투쟁했습니다. 최장고공농성 차광호 동지와 함께 투쟁한 결과로 현재는 파인텍 지회에서 사무장을 맡고 있으나 사측은 자진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35시간 근무를 시키는 등 노조를 탄압하고 있음에도 노동자의 권리와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에 허세욱 장학금을 드립니다.

<투쟁기금>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비정규직지회 (최정명, 한규협)

위 두 동지는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 전부에 대해 '정규직'이라는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정몽구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2015년 6월 11일 국가인권위 옥상 전광판에서 300일이 넘도록 고공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 가장 큰 노동현안인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해 온몸으로 투쟁하는 최정명, 한규협 두 동지,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화성지회 비정규직 분회에 투쟁기금을 전달합니다.

허세욱정신계승 사업회 재정 보고

1. 민족민주노동열사 허세욱정신계승사업회 일반 재정 보고

[2015년 4월 1일 ~ 2016년 4월 1일 현재]

수 입			지 출		
전기이월	19,551,257		경상(운영)비		
cms회비	4,682,210		전화요금	74,450	
이자수입		기금	0	추모연대 의무금	의무금 납부 중단함
		결산	15,329		
			사업비(범국민추모제 및 여중생추모제)		
			범국민추모제	100,000	
			여중생추모제	200,000	
			8주기 추모제 비용		
			6회 장학금	2,500,000	
			추모제 진행비용	467,820	
			기타		
			광주출장비	100,000	
수입합계	24,248,796		지출합계	3,442,270	
			이월금	20,806,526	

거래하신 내용(예금 및 대출)				KB 국민은행	
차	거래일	내 용	잔액	남 은	처리점
계	DATE	CODE	WITHDRAWAL	DEPOSIT	BALANCE
좌	ACCOUNT NO.				BRANCH CODE
		046801-04-069972	허세욱정신계승사업회		*20,436,436
	20160314	인터넷	CMS후원금	*18,850	*20,455,286마포
	20160325	FBS출금		*5,870 KT887050103	*20,449,416스마트
	20160328	인터넷	CMS후원금	*327,110	*20,776,526마포
	20160331	전자금융	민택서울본부	*30,000	*20,806,526기업은
	20160401	통장이월			*20,806,526무교

- 1) 허세욱열사 정신계승사업회 구성 초기 연간 800만원 정도의 CMS 후원금이 점차 줄어들어 현재는 500만원이 안되는 수준으로 줄어들. 중요 원인은 사업회 활동이 매년 4월 추모제를 진행하는 것으로 축소된 것과 후원회원 사업이 전무했기 때문임.
- 2) 허세욱열사정신계승사업회 명의의 1억 기금이 훼손되어 관련한 이자 수입이 없고, 현재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

가슴에 새긴 외침
(고 허세욱 열사 추모곡)

이원경 작곡



허세욱 열사께서 살아온 길

1952년 5월 9일, 경기도 안성군 대능리에서 9남매 중 다섯째로 출생. 안성 읍내의 보문당 서점 점원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조선소, 탄광 일 등 굶은 일을 전전하다 군 제대 후 막걸리 배달, 아이스크림 배달 등의 배달일을 함. 건설 일용직 등 다양한 직업의 노동을 함.

1991년 5월 1일, 한독운수 입사, 택시 노동자 삶을 시작.

1994년 마흔셋 나이로 철거 싸움을 겪으며 사회적 실천 나섬. ‘봉천 6동 세입자대책위’ 풍물패 활동.

1995년 ‘관악주민연대’ 가입, 풍물패 활동을 통해 관악구 다른 지역의 철거 싸움에 참여 위해 ‘봉천놀이마당’ 가입.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에서 서너 해에 걸쳐 여성 장애인들의 이동을 돕는 자원봉사.

1998년 ‘참여연대’ 가입, 2000년 민주노동당 입당하면서 사회적 실천의 폭을 넓힘. 민주노동당에서 그의 별명은 달리는 민주노동당’ 이었고, 택시 안에는 참여연대 유인물이 가장 많았다. ‘다함께’ ‘관악청년회’ 등 활동.

2000년 혼자 매향리에 두 차례 다녀온 뒤 폭격 현장에 증격, ‘매향리미군국제폭격장’ 폐쇄를 강조하고, 주장.

2000년 민주노동당에 입당, 2001년 모범 당원상 받음.

2002년 ‘한독운수노동조합’ 의 민주노총 가입에 앞장섰고, 민주노총 가입 후 ‘5·24 총파업’ 을 겪으며 인천, 천안, 광주, 전주, 충주, 대구 등 전국의 택시노조 파업현장을 찾아다니며 연대의 발걸음을 놓지 않았다. 노동조합 대의원 겸 대외협력부장과 정치통일부장을 역임, 민주택시연맹 모범 조합원상 수상.

2002년 6월 13일, 신호순·심미선 두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죽은 사건을 접하고 혼자 두 여중생의 사고 현장을 찾아갔다. 1년 6개월가량 이어진 촛불집회에 거의 빠짐없이 참석. 그후 살인미군 처벌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전면개정 촛불집회에 참여, 혼자서 유인물을 수만 부 배포.

2004년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에 가입, 용산기지 이전 비용 한국 부담반대, 평택미군기지확장 반대 투쟁 등 반미·평화 운동에 참여, 서울 평통사 노동분회에서 활동.

2005년 민주노동당 관악구위원회 대의원과 6.15공동위 관악본부 집행위원 역임.

2006년 5월 4일, 평택 황새울 벌판에 철조망 설치를 막기 위해 헬기에 뛰어 드는 등 미군기지 확장 반대 투쟁 전면 결함.

2006년 가을부터 한미FTA에 관한 연구에 매진하고 거의 모든 집회에 참여.

한미FTA 협상 타결이 임박한 2007년 3월 29일과 30일, 직접 만든 피켓을 메고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전개.

2007년 4월 1일, 오후, 최종 시한을 넘기며 진행되는 한미FTA 협상 타결을 막기 위해 서울 하얏트호텔 앞에서 “한미FTA 폐기 하라!” 고 외치며 목숨을 내던졌다. 4월 15일 오전 11시 26분, 한강성심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운명.

4월 18일, 마석 모란공원에 안장되었다. 그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삶의 현장에서 가장 많은 축분을 들었던 노동자로 살았다. 택시 노동자가 된 이후 100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도로를 내달렸다. 그중 많은 길은 자기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한, 전체를 위한 연대를 위해 달린 길이었다.

